

영상 아카이브 [완주예술인 ON]

문화예술의 뒷밭을 가꾸는 '윤혜진' 기획자

당신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윤혜진이라고 합니다.

문화기획자란?

보통은 기획자로 통칭을 하기도 하는데요. 공연기획이 있는 것처럼 축제도 기획을 하고 전시나 지역문화예술 교육이나 다양한 문화예술에 관련된 일들을 기획하는 일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기획자가 된 계기는?

네 살 때부터 했었거든요. 무용을..쭉 해왔었다가 대학교때까지 무용을 하고 제가 스스로 좀 행복한 것을 찾고 싶은 갈증이 있었어요. 무용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능력 그리고 바라보고자 하는 지향점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느꼈었고 그렇다면 어떤 걸 하는게 나 스스로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내 성향과는 어떤 직업을 찾는게 좋을까라는 고민 중에 예술경영이라는 학문을 알게 되었고 그걸로 시작이 되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거죠.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쪽 일을 처음 시작한건 축제일이었거든요. 축제라는 공간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 공간에 와서 즐기고 가는건데 저희가 포커싱을 할 수 밖에 없는 대상이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축제라는 공간에 와서 잘 즐기고 경험하고 좀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육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되게 많이 영향을 주는구나. 그때부터 조금씩 그 필요성을 느껴서 꾸준히 계속 이런 활동을 해왔었고 이제는 조금 더 그 일에 더 집중을 하고 확장시켜 보고자 하는 과정인거죠.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어릴적 경험 그것이 이걸 이렇게 하는거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통해지는 교육적 가치.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었고 사실은 비단 아이들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행동, 문화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을 뿌리내리는 것이 공연 한 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꼈었거든요. 모든 세대를 관통하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이제 많은 것들을 흡수하고 경험을 하는 것이 소중한 중요한 시기가 어린이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가 더 집중을 하려고 하는거죠.

생태놀이터를 만들게 된 계기는?

제가 서울, 경기지역에서 활동을 할 때도 어린이 대상으로 예술교육 활동을 했었어요. 하면서 나름 저나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랑 지키고자 했었던 철학, 소명 아이들이 정말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고 어른들의 역할은 그런 바탕을 깔아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완주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 있고 생태적인 환경이 있고 하니 여기에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이 있었고 마침 작년에는 완주문화재단이랑 복합문화지구 누에 팀에서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 단체들과 함께 그런 활동을 거점화 해보자 라고 하는 시도에서 제가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버려져 있는 공간이긴 했지만 거기에 흙 붓고 나무 기둥 세우고 불 가지고 놀고 물 가지고 놀고 하는 진짜 생태로 아이들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만들었던 거고

생태놀이터가 갖는 메시지는?

저희가 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놀이터를 만들려고 했던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만 하면 된다. 보통 놀이터라고 하면 기구들이 먼저 들어와야 되잖아.

기구 보다는 아이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자 가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아마 아이들이 놀지 않을 때 그 공간을 보면 여기는 뭐하는곳이지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아이들이 놀기 시작하면 그곳이 무궁무진한 콘텐츠나 재미가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작년에 나무, 흙, 불, 물을 가지고 아이들과 할 수 있는 콘텐츠를 했었고 했었을 때 아이들만큼 엄마, 아빠들이 엄청 재미있어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간섭없이 자유롭게 흙에 정말 뒹굴고 마음대로 놀 수 있는 시간 그걸 보는 엄마, 아빠로서도 좀 많은 느낌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언제 또 놀 거예요? 라는 요청이 계속 있어서 같이 하고있는 팀분들이랑 올해는 자립적으로 꾸준히 아이들을 만나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또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된거죠.

부모와 함께하는 생태놀이터는?

어떤 프로그램은 부모님을 못 들어 오게 하기도 해요.

아이들이 부모님 간섭없이 너희 마음대로 노는 곳이야 라고 마련해주는 공간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진행되는 생태놀이터는 엄마도 아빠도 같이 놀아야지 아이와 엄마, 아빠의 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유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도 그렇게 제대로 놀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가 경험하고 하는 것들을 사실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걸 같이 경험하고 느껴야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이 같이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던거고, 오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서는 모두가 경어를 쓰자나요. 아이들도 저희한테 '뭐 뭐 해죠.', '뭐 뭐 할까?', '뭐뭐 할게' 라고도 하고 그 호칭과 말투를 엄마, 아빠에게도 똑같이 쓰게 해요. 그러다 보면 놀이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이가 스스로 자립적이기도 하고요. 엄마, 아빠라고 해서 그들이 도움을 주려고 하거나 하지 않아요. 나중에 놀다 보면 엄마, 아빠들이 되려 아이들한테 부탁을 하기도 하고 각자 개체로 따로 놀게 되거든요. 저는 그 분위기가 사실 맞다고 보여지는 거죠. 서로 경어를 쓰기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책임감도 갖게 되고 약간 자립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뭐 해죠'라는 말을 점점 안 쓰게 되요. 왜냐면 동등한 위치가 되기 때문에 뭔가 부탁을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기획자로 갖는 가치관은?

저는 일단 작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 우선 기준이기도 해요. 작가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어떤 성장을 할 수 있을까가 저에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에 지역에 우리의 활동이 어떤 효과나 어떤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기획자로서 책임감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그게 중요하다고 저도 배웠기때문에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는거죠.

기획 아이디어는 어디서? 어떻게?

저는 늘 하는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도 찾고 관련된 키워드나 여러 가지를 해외사례도 찾고 뭐 여러 가지로 찾는 것 같아요. 수시로 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메소드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카드식 아이디어 저장법 마인드맵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는 해요. 활용을 하는데 최근 제가 드는 생각들은 그런 카드를 아무리 많이 해놓고 마인드맵으로 아무리 정리해봤자 제가 몰입하는 순간에 그 몰입도 떨어지면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몰입의 기술에 대해 그걸 막 찾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몰입을 할 수 있을까 약간 일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왜냐면 제가 지금 프리랜서로 있으니까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각각의 프로젝트의 밀도를 높이기 위한 저의 노력이 필요한데 최근에는 그런 밀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문화기획이라고 하는게 장르에 국한되기 보다는 삶 속으로 많이 영향을 주는 편이라 저는 다양한 방면이기도 하지만 삶 안에서 많은 영감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 찾는 문화기획은?

사람에 집중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역문화라고 하는 건 결국 사람에 의해서 발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적 특징은 다를 수 있을지언정 사람과 만나는 그 과정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노력, 책임감 그런 게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리고 문화예술의 가치가 사실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아직은 완주에 온 지 얼마 안되서 그 지역적 특징, 지역적 문화 지역적 사람들의 어떤 그 특징은 아직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고 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씨앗이 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활동을 하려고 하죠.

문화기획자에게 완주란?

문화기획을 하는 사람은 저는 텃밭은 가꾸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예술적 요소, 문화적 요소 이런 것들이 잘 뿌리 내리고 자랄 수 있게끔 하는 토양을 가꾸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기획자로서 완주란 아직 일궈지지 않은 텃밭이다.